변화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강 화 순 양돈마케팅이사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두들 다 알고 있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단 하나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모두들 쉽게 변화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적다.

읽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변화를 강요하기에 자신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고 새롭게 변화려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차치하고도 우리 양돈업계의 최근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지난 10년 만에 양돈농가의 숫자는 10분의 1로 줄었으며 사육두수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현재 11,000여 농가에 달하는 사양가 숫자는 몇년 안에 5,000농가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변화의 관점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슬기롭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이 변화하던 말든 오직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사고이다.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그리 멀지 않은 조선말기 대원군은 서구 열강에 의한 개방을 거부하고 쇄국정책을 펴다 결국 일본에 의해 나라가 강제 합병을 당함으로써 온 국민이 나라 잃은 설움과 나중에는 조국의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우리 양돈업도 과거 수입이 없이 국내 생산 소비라는 국내 경쟁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 개방에 의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국제 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명료하다. 국제 수준의 생산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제 수준의 생산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국제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국제 수준의 생산성을 갖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지금이 한국 양돈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1 질병으로부터 탈출하자.

지난 3년간 우리는 고돈가를 즐겼지만 만성 소모성 질병에 의한 높은 폐사율로 풍요속의 빈곤을 겪어야만 했다. 30~40%가 넘는 높은 폐사율로는 국내 양돈업이 생존하기 힘들다. 높은 폐사율을 줄여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돈의 안정화와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관리가 필수적이다. 모돈 안정화 조치로는 수직감염 차단과 적정 산차 구성 및 철저한 후보돈 관리를 통한 면역수준 향상, 우수한 종돈구입 등으로 환경적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양관리로는 환경적응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기관리와 환절기 온 · 습도, 바람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로는 농장 적정 사육규모에 맞는 사육두수 유지, 질병유입차단, 병원체 공격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한 AIAO, 건조, 소독, 습도조절, 전염원차단(환돈, 구충, 구서), 돼지 항체 역가 검사를 통해 농장 질병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

농장 질병 근절 없이는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질병을 꼭 근절토록 하자.

2 생산성을 향상하자.

우리의 현재 농장 생산성은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앞서 언급된 질병문제로 인해서 생산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묻어가기엔 너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최소한의 생산성 목표는

MSY 20두 이상, 농장 총사료 효율 3.0 이하, 출하 일령 170일 이내, 출하체중 110kg 이상이다.

3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규격 돈육을 생산 공급하자.

소비자가 찾아주지 않는 제품의 생산 공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돈육의 첫번째 조건이 안전성이다. 따라서 항생제나 유해물질, 이물질 등이 돈육에 잔류되지 않도록 안전과 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맛있고 규격돈을 생산 공급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4 친 환경적인 양돈업을 하자.

이제 양돈업도 친환경적이면서 이웃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주민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아울러 돼지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로부터 축산업은 땅을 기름지게 하는 산업이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가축 분뇨를 자연으로 다시 환원시키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정화처리에 중점을 둔 축산폐수가 앞으로는 가축의 분뇨를 퇴비 · 액비 등으로 재활용키 위한 자원화 개념의 가축분뇨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가축분뇨에 친환경 개념을 강화해 퇴 · 액비 등의 자원화가 제도적인 뒤받침 속에 추진된다.

법제처는 2006년 9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또 오수 · 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현행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 분뇨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통합해 규정하고, 가축분뇨는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를 퇴 · 액비 등으로 생산 ·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키 위해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5 양돈사육 규모를 늘리자.

국내 양돈사육두수는 현재 900여만두 정도이다. 이러한 사육규모는 우리 국민의 소비량을 충족하기에는 태부족이다. 현재 돼지고기 수입량이 25~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돼지고기 소비량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사육기반을 확충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돼지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더 많은 돼지고기를 수입하게 되면 더 많은 외화를 낭비해야 하며 우리의 소득을 포기해야만 한다. 또한 수입량이 30%이상을 넘으면 국내 돈가가 수입산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양돈사육 규모의 확대와 적정사육두수 유지는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다. 최소한 1,000만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올 한 해에도 양돈인 전체가 하나 되어 업계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돈 많이 벌고 신명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양돈